

투데이 칼럼

북한 핵무기 역사(I)

북한이 핵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1960년 한국 전쟁 때이다. 북한은 당시 미국의 공군력과 핵무기를 매우 두려워했다. 그런데다 참전 중인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안하무인이었다. 북한은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이 절실했다. 그 뒤 1960년대 중소 갈등의 노골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편도 소련 편도 아니라는 '주체사상'을 펼치게 했다.

북한 핵은 중국과 소련 두 나라 모두 믿을 수 없게 된 북한이 처한 주변 상황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1954년 인민군을 재편성 하면서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했다. 1956년에는 30여 명의 물리학자를 소련의 핵 연구소에 파견했다. 이것이 북한 핵 개발 시작이다. 1959년 9월 체결된 조소(趙蘇)원자력 협정은 북한 핵개발 정책의 공식적인 출발이다.

그 뒤 북한은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어 김일성 대학과 김책공과대학에 핵 연구 부문을 창설하여 자체적으로 핵개발 인원을 길러내기 시작했다. 1965년 6월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RT-2000 원자로를 도입, 본격적인 핵 연구를 시작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는 핵을 개발하기 위해 은밀하게 노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연막술을 펼쳤다.

1974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에 가입, 국제원자력 안전 체제에 들어갔다. 1980년대 이전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 의혹을 받은 측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핵, 반핵, 양키 고졸이라는 구호까지 제시하며 핵무장 노력을 눈가림 했다.

1985년 12월 핵 확산 금지조약(NPT)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북한 핵문제는 국제 문제로 불거졌다. NPT 가입국은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핵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버렸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1989년 1월부터 북한을 A급 감시 지역으로 설정하고 군사정

찰 위성의 정찰 활동을 평소 수준보다 여러 배 증강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은 미국 정찰 위성의 집중적 관찰 대상이었다. 미국은 1989년 7월 영변에 핵폭탄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국제공론화 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상용 정찰 위성 스푸트(SFOT) 호가 촬영한 영변 핵시설 사진을 일본 동해대학 정보기술센터가 관독하게 했다.

1990년 2월 동해대학은 북한이 전 조종인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방공포 등 군사시설이 찍혀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영변의 핵시설 원자력 발전 시설을 넘어 핵무기를 준비하는 시설물이라는 점을 온 세계에 알렸다. 이때부터 북한 핵문제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핵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밀고 당기는 상황을 지속했다.

1994년 6월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계획은 긴장이 최고점에 이른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해 7월 김일성이 사망 한 후 미국은 같은 해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제네바 핵위기를 종결시켰다.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주고 중유 제공 등 경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의 계기가 아니라 '동맹'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그 자체를 인정해 준 셈이다.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직후 권력이 공고화되지 못한 만큼 미국과 계속 다룰 경우 이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단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여 당분간 시간을 벌자는 의도였다. 이미 소련이 몰락하고, 중국마저 공산주의를 포기한 후 대한민국과 수교까지 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미국 역시 소련이 와해된 마당에 북한 공산주의가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 핵시설 폭격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반대하는 마당에 미국은 북한에 핵이 한두 발 있는 것은 눈감아 줄 수 있었다.

기고문

우리 집 소방관 '주택용소방시설'

전북소방본부 화재 통계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계절별 화재는 봄철 31%, 여름철 21%, 가을철 24%, 겨울철 24% 등으로 집계됐으며 봄철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북도 작년 한해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2.94%를 차지해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익산소방서에는 올 한해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20,420가구에 대해 주택용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79.1%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예산 확보 및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소방안전 강화 및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

다. 외부활동 제한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집콕 시간'이 늘어나 우리 집 안전기간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작은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2012년 2월부터 신규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뒤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쯤만 들으면 거창해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주택용 화재감지기는 생소할 거다. 주택용 화재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대피하세요'라는 경보



전경밀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음이 울려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경보장치이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대형할인점,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가격도 3~4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고

설치도 간편하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구매를 망설이지 않을 거로 본다.

익산소방서는 계속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해 소방관서와 원거리 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소화기 보급·소방안전컨설팅을 통해 화재 피해 예방을 노력한다.

화재는 불시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은 이제 버려야 한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무관심할 수 있지만 주변의 안전 사고에 다시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잘못된 대처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런 불행은 막기 위해 지금 바로 가까운 판매점으로 달려가자.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될 소방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설

한미 배터리 동맹 가속화

한미 '배터리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SK이노베이션과 미국 포드사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포드 공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들고 있는 차가 바로 포드사의 첫 전기 픽업트럭이었다.

내년 봄 출시 예정인 이 전기차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다.

SK는 현재 조지아주에 3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포드와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LG·GM에 이어 SK·포드가 손을 잡으면서, 미국 1.2위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동차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원월'이지만, 중국을 따라잡는다는 미국 목표에, 한국 배터리가 힘을 실어주는 구도가 됐다.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는 올 1분기 중국에서 50만대 넘게 팔리는 등 급성장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비야디 등이 몸집을 불리자 시장을 양분했던 한국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

'한미 배터리 동맹' 구상은 한국의 경쟁력을 활용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산 제품을 우선한다는 이른바 '바이아메리카'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법인을 만든 데는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 속에서도 월가의 중국 투자는 오히려 늘었다.

우리 기업들도 미국과 협력해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 중국을 공략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중요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힐링과 허향덕 민요 강사

코로나 시대에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주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민요 강사가 있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주민센터의 허향덕 민요 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허향덕 강사는 코로나가 여전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풍남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민요 교실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물론 수업은 카카오톡 온라인 강의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허향덕 강사의 민요 교실은 일요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번씩 열린다.

수강생들은 집에서 허향덕 강사가 녹화한 화면을 통해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일부터 이미 시작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모두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민요 교실이 너무 고맙다며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리고 있다.

댓글을 올리는 수강생들은 임영자, 조운례, 황장민, 승훈, 박주현(미라), 박영자(더한옥), 사론송, 이선애, 박노신, 정승용, 도미

혜, 한경남씨 등이다. 수강생 조운례씨는 "오랜만에 자진머리와 뱃노래 등 민요와 판소리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니 속이 후련하다"고 댓글을 통해 털어놓았다.

수강생들의 칭찬까지 받으면서 허향덕 강사는 더 신나게 노래를 가르친다. 물론 스스로도 신나는 민요를 통해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

전주 시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 여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민요 교실과 가요 교실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심신이 피로한 때이다. 이런 매일수룩 노래를 통해 건강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힐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신선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조기 종식이다. 종전처럼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노래를 배우기를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